드라마 '법쩐' 문채원

"차가운 검사로 변신 로코 벗어나 더 끌렸죠"

웃음기 하나 없는 무미건조한 표정에 단호하고 냉정한 말투. 배우 문채원(38)이 SBS 금토드라마 '법쩐'에서 기존의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벗어던졌다.

그가 연기한 박준경은 한때 누구보다도 바르고 정의로운 검사였지만, 엄마의 죽음 이후 검찰 조직에 환멸을 느끼고, 차가운 복수를 결심한 인물이다.

'괴물이 되기 위해서는 괴물이 돼야 한다'며 때로는 잔혹할 만큼 냉철하게 굴고, 어떤 고난이나 위험도 홀로 묵묵히 감내하려고 한다. 날 선 감정을 내면에 묻어둔 채 복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묵묵히 달려간다.

드라마 종영을 앞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난 문채원은 박준경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다. 박준경처럼 차갑지는 않지만, 차분함 속에서 내면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문채원은 그간 주로 출연해온 로맨틱 코미디 작품 속 여자 주인공 캐릭터와는 다른 매력을 지닌 박준경의 모습에 끌려 작품에 출연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저한테 들어오는 대본은 주로 로맨틱 코미디거나 이뤄질 수 없는 남자와의 사랑에 힘들어하는 이야기인데, '법쩐'은 이런 대본과는 달랐다"며 "비슷비슷한 감정이 아닌 다른 마음을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준경은 닮고 싶지만 그렇게 되기 어려운 사람"이라며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우니까 작품에서 해보면 재밌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극 중 박준경은 건조하다 못해 메말라 보이기까지 한다. 의상도 주로 어두운 계열의 바지 정장 차림이고 액세서리도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총 12부작 중 박준경이 웃는 모습은 손에 꼽힐 정도다. 이 때문에 팬들이 서운해하기도 했다고 했다.

문채원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내면연기가 어렵지 않았냐는 질문에 "차분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며 "오히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들떠있는 연기를 하는 걸 더 어려워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에 박준경과 엄마의 과거 서사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왜 박준경이 저렇게까지 엄마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설명돼야 할 것 같아서 엄마에 대한 감정을 계속 끌고 가며 연기했다. 그러다 보니 약간 무거워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누구보다 정의로운 검사가 되고 싶었던 박준경은 선배 검사 황기석(박훈)과의 거래로 증거 조작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 이후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황기석을 향한 복수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 방법이 비록 정의롭지 않더라도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문채원은 정의를 위해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택한 박준경의 선택에 대해 "분명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극 중간에 다시 검사가 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거절을 한다. 그만큼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드라마 말미 박준경의 복수는 정의로운 청년 검찰 장택준의 손을 통해 성공적으로 끝난다. 법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했던 황기석과 돈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 했던 명회장은 죗값을 치른다.

"복수라는 것도 자기 마음이 편해야 하잖아요. 우리 엄마를 죽인 사람의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건 정말 괴물이죠. 결국 준경이는 괴물을 상대하겠다고 괴물이 되지는 않아요. 좀 더 짜릿한 결말을 원한 시청자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인물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세웠던 목표를 끝맺은 결말에 만족해요." /연합뉴스

가요계 '지진 피해 돕기' 온정

왼쪽부터 윤미래, 타이거JK, 비비. /연합뉴스

BTS 소속사 하이브 5억원 SM 2억원…타이거JK 4천만원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구호를 위한 한국 가요계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는 이날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

하이브는 "세계 전역에서 보내주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장한 기업이기에 전 세계인들이 염원하는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을 위해 구호 활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브가 전달한 기부금은 담요, 의류 등 아동을 위한 방한용품을 비롯해 물, 식량, 의료용품, 위생 키트, 아동 보호를 위한 임시 대피소 마련 등에 사용된다.

SM엔터테인먼트도 이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억원을 기부했다.

이성수·탁영준 현 SM공동대표이사는 "한순간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모든 분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피해를 극복해나가는 길에 SM이 조금이나마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래퍼 타이거JK·윤미래 부부와 비비도 성금 4000만원을 전했다. 타이거JK 부부와 비비가 각각 2000만원씩을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국경없는 의사회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배우 강남길 '그리스 로마 신화' 책 냈다

'강남길의 명화와 함께…' 유적지 직접 답사 등 14년 간 집필

배우 강남길(65·사진)이 14년에 걸쳐 그리스 로마신화를 세계의 명화, 조각과 함께 엮어 쓴 책을 최근 내놨다.

제목은 '강남길의 명화와 함께 후루룩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다. 총 3권으로 1400여 쪽 분량이다. 한평생을 연기자로 살아온 그가 전문가도 쉽게 손대지 못하는 방대한 분량의 그리스·로마 신화 집필에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강남길은 책 소개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로마 신화를 좀 더 쉽게 접하고 알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건방진' 생각에 책 집필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로마 신화는 재밌지만, 신과 영웅뿐 아니라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헷갈리고 어렵다고 한다"며 "워낙 스케일이 방대하고 또한 이야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혼동되고, 이에 먼저 포기해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화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시간대별로 목차를 쉽게 정리하고, 직접 촬영한 사진과 함께 지루하지 않고 쉬운 책을 써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렇게 쓴 원고를 다듬고, 신화 관련 유적지와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파는데 14년의 세월이 걸렸다. 책에는 강남길이 직접 찍고 엄선한 1500장의 사진이 담겼다.

책에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그리스 3대 비극, 트로이 전쟁, 영웅 아이네이아스 이야기까지 그리스·로마 신화의 전체 내용이 거의 빠지지 않고 담겼다. 여기에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조각이나 명화가 곁들여져 있어 재미를 더한다. 전반적인 구성은 드라마 형식을 통해 재미와 가독성을 높였다. 장문이 아닌 단문들로 구성돼 책 제목처럼 '후루룩' 가볍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사실 이번 책이 강남길의 첫 집필은 아니다.

강남길은 1998년 'TV보다 쉬운 컴퓨터'를 시작으로 '강남길의 컴퓨터'(2003)와 'NEW 할수있다! 강남길의 컴퓨터'(2003) 등을 집필했다. 또 2000년부터 4년간 두 자녀와 함께 영국에 거주하며 경험한 이야기를 담은 '강남길의 오! 마이 고드'(2004)를 출간했다. /연합뉴스

벌써 1년 … 강수연 1주기 추모행사

추모위, 4월 추모집·5월 상영전

오는 5월 고(故) 강수연〈사진〉 배우 1주기를 앞두고 결성된 '강수연 추모사업 추진위원회'는 '강수연, 영화롭게 오랫동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추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추진위는 올해 4월 말 추모집을 낼 예정이다. 추모집에는 가족이 간직해온 사진을 비롯해 고인이 영화제나 촬영장에서 활동했던 당시를 기록한 사진 등이 담긴다. 사회 각계 인사들이 소장한 사진도 포함될 예정이다.

5월 6~9일에는 고인의 생전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추모 상영전은 6일 서울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과 7~9일 메가박스 성수에서 나눠 열린다.

개막작 '씨받이'(1986)를 시작으로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1987), '아제아제 바라아제'(1989), '경마장 가는 길'(1991), '그대 안의 블루'(1992),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5), '처녀들의 저녁식사'(1998), '송어'(1999), '달빛 길어올리기'(2010), '주리'(2013), 고인의 유작 '정이'(2023)까지 총 11편이 나눠 상영된다.

추진위는 작품 상영과 함께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영화계가 한뜻이 돼 꾸린 추진위는 임권택 감독이 명예위원장을,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배우 박중훈과 예지원이 부위원장을, 배우 안성기, 이덕화, 권해효를 비롯해 연상호, 봉준호 감독, 고인의 동생인 강수경 씨 등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다. 추진위는 운영·홍보위원을 포함해 총 28명으로 꾸려졌다.

생전 '원조 월드스타'로 불린 배우 강수연은 작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 세상을 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